

## 대학원 석사과정 후기

20213202 김현지

2019년 9월에 서화정 교수님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진학한 후에서부터 2021년까지 석사 과정을 밟으며 느낀 점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4학년 1학기에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 수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모르는 것이 엄청 많다는 것을 느꼈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과 이대로는 취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교수님의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학교 공부나 자격증 공부와 같은 이론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코딩을 거의 못하는 상태였고, 구글링 등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부연구생으로 들어온 후, 교수님께서 주제를 하나 주시며 논문을 작성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시간 없이 바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빠르게 배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암호구현 연구실이라고 해서 모두가 암호구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스펙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할 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하는 논문, 공모전 등의 학술활동을 할 때, 회의 등을 통해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시고,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연구실에 들어온 후로 논문이나 수상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실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대학원 친구들은 본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연구실 홈페이지의 일상생활 탭에 업로드 된 사진들처럼 다 같이 게임도하고 남산타워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배드민턴도 치고 생일파티도 해주고 여행도 갑니다. 그래서 연구실 분위기도 딱딱하지 않고, 공부할 때도 서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연구 관련된 것 외에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하나하나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석사 생활동안 재미있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연구실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CryptoCraftLab에서 석사 과정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